3/4

늦은 오후 옆으로 때리는 햇살을 그대로 받고
따뜻하게 빛나는 세갈래 나무
우뚝하고 유려한 한 줄기가 세 방향으로 뻗을 때
앞세우거나 뒤쳐지거나 견주어볼 필요 없이
서로의 갈래를 지지해

물가에 심어진 세갈래
세가지 길위에 놓여진
물소리 세박자 칸타타

안으로 포획된 늙음은
여전히 당연히 그렇게
세갈래 몸체를 만들어

흐르고 전하고 안녕히
매일을 그오후 그대로
살았고 지내며 지나네